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예방보존 방법론

전 경 미 *

- I. 머리말
- II. 예방보존의 의의와 필요성
 - 1. 예방보존의 의의
 - 2. 예방보존의 필요성
- III. 전통적인 문화재 예방보존 전개
 - 1. 지류 및 섬유류 문화재의 예방보존 전개
 - 2. 목조문화재의 예방보존 전개
- IV.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예방보존 방법론
 - 1. 예방보존을 위한 기초 방법론
 - 2. 예방보존을 위한 파트너십 스킴
- V. 맺음말

I. 머리말

문화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시각적 역사자료로, 문화융성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자원이며, 이를 위한 문화재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문화재는 선조가 우리에게 남겨 준 유산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인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소임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존관리는 더욱 강조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 제 9 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가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이 1962 년에 제정된 이후, 문화재청은 傳世되거나 발굴된 국내외의¹⁾ 모

* 예원예술대학교

1) 1982년 문화재보호법 전문 개정 시 문화재의 유형에서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문화재의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범주를 확장하였다. 박동석, 『문화재법』 총론편(민속원, 2014), p.21. ‘우리나라란

든 문화재²⁾를 관리해 오고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전까지는 주로 손을 대어 수리하는 ‘수리보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재보존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과 원형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개는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학술지인 『문화재』에 실린 논문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60년대는 「올바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김원룡, 창간호, 1965), 「문화재관리행정의 기본 방향」(정재훈, 제 4호, 1969) 등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등의 방향성을 다루고 있었다. 70년대는 「문화재 과학적 보존에 관하여」,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온습도기준」(김유선, 登石建三·김병호 외, 제 5호, 1971), 「유네스코와 문화재 보존 및 복구」(백승길, 제 10호, 1976), 「건조물 문화재 보수·수복 방향」(장경호, 제 11호, 1977) 등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80~90년대에 「문화재 보존철학의 발전과 보수의 윤리규범」(이태녕, 제 14호, 1981), 「건조물 문화재 보존에 관하여」(윤장섭, 제 18호, 1985), 「영국의 문화재 보존정책」(김봉건, 제 25호, 1992),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복원 문제」(이상해, 제 26호, 1993), 등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소개와 우리의 적용을 다루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 「문화유산 보존정책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이수정, 44권 4호, 2011) 등을 통해 문화재 원형과 문화재 보존철학에 대한 고민이 적극 개선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의 문화재관리 방법은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졌고 더욱이 손을 대서 수리하는 ‘보수관리’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적 정책이 이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II장 예방보존의 의의와 필요성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또 예방보존의 개념이 서구 사회에서 들어오기 전, 이미 우리 선조들이 문화유산을 아끼고 수선대후하기 위해 펼쳐온 예방보존의 방법들이 있었음을 정리해보고 IV장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보존 방법을 예방의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다만 III. 전통적인 예방보존의 전개부분은 향후 다양한 재질에 따른 자료들을 더 수집, 연구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IV.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예방보존의 방법론에서는 기초적인 예방보존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재질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론은 앞으로 더 연구하기로 한다.

말을 삭제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2) 김수갑, 「문화재보호법의 해석과 적용」, 『문화재정책과 전문가의 역할』(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구원, 2009), p.12.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명승과 천연기념물까지를 포함한 ‘포괄적법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II. 예방보존의 의의와 필요성

1. 예방보존의 의의

“예방(豫防)”은 사전에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막음”, “(탈이나 기 전에) 미리 막음”³⁾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비슷한 단어로 방예(防豫)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존(保存)”은 “잘 간수하여 남아 있게 함”, 또는 “잘 지니어 상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함”⁴⁾이라는 뜻이다. 도이시겐조는 『문화재 보존과학의 원리』의 머리말에서 ‘예방보존’은 “유물 자체에 손을 대지 않고 상태나 조건을 좋게 해서 열화를 막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보존에 있어서 Preservation 과 Conservation 두 개념 가운데 예방보존에 가까운 개념은 ‘Preservation’이라고 선택, 사용하였다.⁵⁾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에서의 ‘예방보존’은 “문화재의 전시, 보관, 운반, 활용 등의 과정에서 문화재의 손상 또는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존에 가장 적합한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⁶⁾. 그리고 『보존윤리규범 기초연구』에서는 국제박물관협회 보존위원회의 ‘보존’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보존’은 예방보존, 수리보존, 복원의 세부적인 행위로 분류하고 정의하기를 ‘예방보존’은 향후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행위로서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문화재의 재료와 구조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 외형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행위, ‘수리보존’은 진행되고 있는 손상과정을 제어하거나 구조적인 보강을 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행위로서 문화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손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 취하는 방식으로 때로 이 행위는 외형을 변형시키기도 한다고 하였고, ‘복원’은 문화재의 가치와 이해 및 활용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두는 행위로, 그 일부가 손실되었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원재료를 감안하여 하는 조치로 대개 외형상 변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⁷⁾

3) <http://dic.naver.com/word/>, 『동아 새국어사전』(두산동아, 2001), p.1690.

4) <http://dic.naver.com/word/>, 『동아 새국어사전』(두산동아, 2001), p.1031.

5) 도이시겐조 외 지음, 전경미 옮김, 『문화재보존과학의 원리』(한언, 2004), p.9.

6) 『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12.

7) 『보존윤리규범 기초연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41의 내용을 고명환은 「건조물 문화재 예방보존을 위한 관리방법의 기초 연구」(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5, 에서 ‘예방조치(preventive care)’에 대해 “향후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all measures and actions at avoiding minimizing future deterioration)이라고 예방조치를 예방보존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동산문화재 및 박물관 유물에 있어서의 예방보존에 대해 J. Merritt 와 J.A. Reily 는 예방보존의 정의로 “훼손이나 손상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건으로부터 수집품의 보호를 위해 보관, 전시, 이동 등의 활동에 따른 보존적정 환경의 제시와 통제절차의 준수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⁸⁾ 그리고 Casper 는 전시공간의 설정과 보존을 위한 습기문제의 해결방안, 정기적인 해충과 유충 발생의 진단 등 소장품의 이른바 예방보존에 대한 방법을 책자를 통해 발간하였다.⁹⁾

즉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여 “예방보존”에 대해 정의해 본다면 “문화재의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막고 손을 대지 않고 문화재가 후손에게 잘 전해지도록 문화재의 주변환경 및 보존환경을 유지(maintenance), 관리(care)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예방보존”이라는 단어는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합성어로, 그 행위와 조치범위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선조들이 이미 진행해 오던 ‘봉심’이나 ‘형지’와 같은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진행해 왔던 예방보존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통해 찾아서 III 장에서 ‘전통적인 문화재 예방보존전개’로 묶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예방보존의 필요성

예방보존은 ‘원형유지’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자 목적이다. 이 원형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 3 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성문화함에 따라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다.

‘원형’의 개념은 “본래의 형상 즉 형태와 상태를 모두 포함하며 처음 만들어진 시점의 모습이나 당대 이전의 모습을 모두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의 용어를 암시하는 것”¹⁰⁾으로, ‘원형’은 그 문화유산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근간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모든 문화재 지정과 보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원형유지에 대한 애착은 근대화 사회를 벗어나면서 더욱 강조되어 왔었다. 즉 식민통치와 해방,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서구적 근대화로 보내면서 과거의 전통은 고의적으로 또는 무관심 속에서 없어지거나 잊혀지거나 멸실, 훼손되었다. 더욱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던 시기의 우리 국가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중흥, 민족주체성 확립해야

8) J. Merritt, J. A. Reilly, 『Preventive Conservation for Historic』(House Museums, AltaMira Press, 2010), p.11.

9) 고명환, 앞 논문, P.20

10) 이수정, 「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 원칙의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 『문화재』49권 1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p.105.

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각 학교마다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세웠고 호국선열과 국방유적의 정화와 복원사업을 이루어 당시를 경험한 세대는 동상이 주는 이미지로 그들을 기억하게 되었다.¹¹⁾ 민족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 앞에 민족의식을 결속시키기 위한, 민족의 상징으로써의 문화유산이 그 증거로 필요하였기에 ‘만들어진 전통’이 발명되고 탄생된 측면이 강하였다.¹²⁾ 그러므로 ‘원형’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진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고¹³⁾ 원형이 유지되어야 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문화재가 민족 또는 국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세계화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특징짓는 필연적 요소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는 민족국가의 국경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고, 문화적 동질화와 차이의 분절과 긴장관계로 정의되었기에 의식구조와 문화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화제국주의가 도래될 것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는 각 지역의 차별성과 차별화 과정으로의 복귀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가 ‘문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고유문화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 현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어서¹⁴⁾ 정체성 개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각 국가의 정체성을 지닌 문화유산은 21 세기에 들어와 산업을 이끌 큰 동력의 분야이기 때문에 예방보존은 더욱 필요하다.

세계화 가운데 국가정체성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고유성’이다. 왜냐면 우리 문화는 서구 유럽에서 볼 때, 중국의 이류문화 정도로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즉 목조건축물에 있어서 기와, 목구조, 흙벽 등이 3 개 국가가 비슷하여 고유성을 언급하지 않으면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고유성은 ‘시원’과는 다른 ‘개성’과 동의어¹⁵⁾라고 보는 의견에 동의한다. 또한 고유성은 국가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말할 때도 필요한 요소이다. 즉 교통신수될 수 없었던 시대의 각 지역 문화재는 같은 기능을 가진 문화재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각각의 재료와 기법에 있어서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유성은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손을 대서 수리하는 문화재 관리에 의해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전통 대패와 같은 도구와

11) 이명선, 「중요무형문화재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7), p. 21.

12) 이명선, 앞 논문, p.24

13) 대표적인 예가 봉정사 극락전의 해체수리에 의한 변형, 불국사 복원, 미륵사지 동탑 복원, 정림사지 복원 등: 이상해,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복원의 과제」, 『문화재』 제26호(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pp. 326~335.

14) 변청자, 「한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체성의 문제」(홍익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pp.7~20.

15)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책세상, 2016), pp.84~94.

편리하고 빠른 기계들에 의해 ‘수리’가 행해지면서 이른바 ‘작가성’, 또는 ‘손맛’이라는 고유성의 표현들이 사라졌고, 전국이 동일한 전통 도구 및 연장에 의해 ‘동일성’만 남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소조상과 목조건축물 수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소조상의 경우 보존수리 시, 안료와 마감재질의 교체에 따른 소조상 본래의 인상에 변형이 일어났고 목조건축물의 경우 연장의 전통화에 의해서 까래 치목에서 위아래가 같은 직선적 통서까래가 전국화 되고 있다. 보존수리 된 문화재가 ‘테세우스의 배’처럼 원형과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 할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III. 전통적인 문화재 예방보존의 전개

모든 문화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 손상과 훼손 등의 물성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가급적 서서히 일어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이러한 노력은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의례 등의 관찬사에서 뿐만 아니라 산림경제와 같은 사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기록물을 위한 예방보존적 활동은 봉심(奉審), 포쇄(曝曬), 방충(防蟲) 등의 방법이 있었다.¹⁶⁾ 그러한 예방보존적 노력들에 대한 내용을 지류 및 섬유류와 목조문화유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지류 및 섬유류에 있어서의 예방보존

우리의 지류나 섬유류로 된 전통적인 문서와 회화작품 등은 물리적인 훼손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보존되기 위해 ‘장황’을 통해 예방보존 되었다. 즉 낱장의 작품이나 문서는 ‘장황’한 축, 첩, 책, 병풍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관리 되었고 감상하는데 도움도 되었다.¹⁷⁾ 다시 말해 장황은 지류 및 섬유류의 작품을 예방보존과 감상의 두 기능을 갖춘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낱장의 책봉, 교명 등은 두루마리 장황을 통하여 보존하였고 또 의례나 어필과 같은 기록물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첩과 책으로 장황하여 보관하는 예방보존의 노력을 이루어왔다.

『임원경제지』에서 병풍의 경우 쥐나 벌레에 의한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거친 베인 갈포로 병풍을 감싸는 외투를 만들고 병풍 전체를 감싼 다음 2 개의 나무판 사이에 병풍을 묶어서 통풍이 잘 되는

16) 황유정, 「조선시대 기록물의 보존활동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1.

17) 이진희, 「조선시대 장황 용어와 관련 기록」, 『장서각』 23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p.128.

곳에 보관하는 예방보존 방법도 있었고 취장의 경우 보자기로 감싸고 궤에 보관하며 장마의 시작과 끝에 햇볕에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¹⁸⁾

역사시대의 유물로 현존하는 지류 문화재 가운데 가장 오랜 것은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두루말이 형식의 축장본이다. 오랜 세월 탑신부의 사리함에 보관되어 왔던 것을 1966년 수리하면서 발견하였는데 유기질 문화재로 천년 넘는 시간을 버텨온 것은 종이 자체의 보존성도 있었지만 도침과 마연 및 황벽 염색의 가공을 통해 해충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¹⁹⁾ 예방보존의 방법을 강구한 결과였다.

지류 및 섬유류의 배접 시 사용된 풀은 용뇌, 소뇌, 사향 등의 약재를 넣어서 만들었는데²⁰⁾ 그 이유도 작품의 예방보존을 고려한 것이다. 또 풀의 제조과정에 백반을 사용한 예도 있는데 이는 벌레나 곰으로부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²¹⁾ 지류문화재에 있어서 백반의 예방보존적 역할은 『본초강목』에서 ‘백반을 물에 타서 종이에 글을 써서 말리면 물이 서에 침투하지 못하니 그 약성이 습을 물리치는 것’²²⁾ 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수선대후(守先待後)하려는 예방보존적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동의보감』에서 백반의 효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살균과 살충과 습(濕)을 말리는 효능²³⁾을 활용하여 풀을 만든 것이다.

고려시대의 묘법연화경과 같은 사경은 바탕재료를 대부분 닥종이로 여러 겹 붙여 매우 두껍고 튼튼하게 만든 후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쪽물 같은 짙은 남색으로 염색한 감지(紺紙)²⁴⁾, 도토리 열매를 삶은 물에 담가 갈색으로 염색한 상지(橡紙), 지초부리와 잇꽃²⁵⁾으로 물들인 자지(紫紙) 등을 사용하였던 점도 예방보존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편찬물에 있어서 예방보존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봉심

-
- 18) 한지희,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67.
- 19)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 206~207.
- 20) 『慶基殿影幀後面加補謄錄』, www.koreanhistory.or.kr(검색일 : 2016년)
- 21) 『山林經濟』, 卷之三[甲乙本作四] / 雜方
- 22) 『本草學』(도서출판 영림사, 1988), p.682.
- 23) 하상민, 「백반의 상처 치유 활성화에 관한 연구」(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1~2.
- 24) 원성숙, 「한국의 식물성 염료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3. 쪽의 성질 가운데 해독성과 살충성이 있는 약용식물이라고 하고 있어서 쪽 염색 자체가 예방보존을 위함이었다고 추정한다.
- 25) 한미라, 「국화와 3종(선복화, 감국, 홍화)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대구한의과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29. 잇꽃(홍화) 역시 항산화, 항균성의 성질을 지닌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 재료를 사용하여 염색한 이유도 역시 방충방균을 염두에 둔 예방보존적 의도라고 할 수 있다.

(奉審), 포쇄(曝曬), 방충(防蟲)과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각각 건축과 같은 예방보존적 노력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 지류와 섬유류의 예방보존적 방법은 포쇄와 방충이 해당되고, 봉심은 건축물의 예방보존에 더 가까운 의미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목조문화유산의 예방보존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포쇄는 책을 거풍(擧風 : 바람을 쐬는 것)시켜서 습기를 제거하여 부식 및 충해를 방지시킴으로써 서적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다. 포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충렬왕 때 직사관 秋適이 해인사에 주장되어 있는 『고려실록』을 포쇄한 일이다. 그 뒤 민은평이 충숙왕 13년(1326)에 해인사에 가서 직접 國史를 포쇄한 일, 사관 최덕성이 포쇄하려 간 일, 공민왕 11년(1362)에 흥건적의 침입 시 산일된 실록사고 3 권 10 여사를 문묘에 두고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 사관에게 명령하여 포쇄한 뒤 보관하고 수직할 것을 상소한 일, 그리고 우왕 9년(1393)에 수찬 배증원이 죽주 칠장사의 실록을 포쇄한 일 등이 있으며, 공민왕 때를 제외하고 모두 '曝史'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전통을 조선 시대에 이어 '고사를 준수하여' 또는 '舊禮에 따라' 등의 표현을 통해 고려시대의 포쇄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또한 근과 충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기 위해 천연약재인 천궁과 창포를 갑대에 넣어 '봉과식(封裹式)' 때 보관하였는데 인조부터 철종까지의 실록의례를 통해 볼 때 약재의 양이 대폭 늘어났고, 특히 천궁보다 창포의 량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는데²⁷⁾ 실록을 충해와 습기로부터 예방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또 국가적 기록물을 충해로부터 보호되도록, 그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기적인 '포쇄'를 실시하는 규정을 세웠다.

조선시대의 기록물 보존은 황유정의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 이 논문은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에서 봉심, 장문서, 문서고, 승문원, 각각고, 사고 등의 봉안, 형지안, 등록(騰錄)과 같은 일, 그리고 기록물의 생물학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쇄, 방충에 관한 일, 장황 등의 기록물 보존방법을 자세히 언급하였다.²⁹⁾

조선시대의 지류 및 섬유류 문화재의 생물학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쇄와 방충 활동은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예방보존 방법'에 해당한다. 포쇄는 주로 봄과 가을의 청명한 길일을 택하여 시행하였는데 특히 실록형지안에 따르면 대부분 음력 3월~5월과 8월~10월에 행하였다고 한다.³⁰⁾ 또한

26) 박대길, 『조선후기 적상산사고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117~118.

27) 송기중·신병주·박지선·이연성, 『조선왕조실록 -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p.136~143.

28) 조은혜, 「서화 유물 보존에 사용된 전통 천연 약재에 관한 연구」(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5~15.

29) 황유정, 앞 논문 pp.11~ 63

포쇄에는 청명한 날 외에 온돌방에서 불을 떼어 서책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포함시켰다.³¹⁾

교명의 상황을 마친 후, 궤에 넣을 때는 빈 공간에 솜(雪綿子)을 넣어 이동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교명궤에 벌레 피해를 막기 위해 의향(衣香)도 2 봉씩 넣어³²⁾ 예방보존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承政院日記』나 『慶基殿義』에서 어진을 생물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향(衣香)과 부용향(芙蓉香)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였고, 공신도상이나 사대부상과 같은 초상화를 보관하는 궤에도 의향을 넣어 보관하는³³⁾ 예방보존적인 대책이 있어 왔다.

『동의보감』 「雜病」에서는 ‘평지(또는 蠶臺:유채꽃)가 즙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으므로 책 속에 넣어두면 좀 걱정이 없다’는 내용을 통해 서책을 즙으로부터 보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산림경제』 제 3 권 「辟蟲」과 『濟衆新編』 「雜病」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³⁴⁾ 또 『산림경제』 제 4 권 「잡방」의 서화보관법에서도 운향을 많이 사용하여 즙을 쫓았고, 사향도 좋고 장뇌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³⁵⁾고 하였고, 『산림경제』 제 3 권 「辟蟲」에서 7월에 각호(角蒿)를 거두어 전옥(氈褥)이나 서적 속에 넣어두어 좀 벌레의 피해로부터 보호했음을 알 수 있다.³⁶⁾

2. 목조문화재의 예방보존 전개

목조문화재는 건조물과 목조상 또는 목공예품 등으로 분류되며, 우선 목조건조물의 예방보존을 위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은 조선시대 ‘봉심’의 관련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봉심은 ‘밭들어서 살핌’이라는 의미로 임금의 사당, 능침 그 밖의 제단, 묘지를 살피보는 행위와 옥책, 죽책 및 고명과 실록에 대해 살피는 일을 말하고, 대전회통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즉 봉심은 오늘날의 보존처리 전에 행해지는 문화재 상태조사, 사전조사와 비슷한 활동³⁷⁾ 또는 문화재 보

30) 신병주,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간행과 보관」, 『역사와 현실』, 통권61호(2006), p.205.

31) 황유정, 앞 논문, p.53

32) 김경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의 교명 상황」, 『고궁문화』, 제2호(국립고궁박물관, 2008), p.69.

33) 조은혜, 앞 논문, pp.19~20, p.37.

34) 『東醫寶鑑』 「雜病」: ‘蠶臺辟蟲 置書中 無蠹, 無蠹患’
『山林經濟』 第三卷 「辟蟲」: ‘蠶臺 置書中. 無蠹患’ 『本草』,
『濟衆新編』 「雜病」: ‘蠶臺辟蟲置書中, 無蠹患’

35) 『山林經濟』 第四卷 「雜方」: ‘古人藏書 多用芸香. 辟蟲. 麝香亦可. 一法. 用獐腦亦佳 『必用』

36) 『山林經濟』 第三卷 「辟蟲」: ‘七月收角蒿. 置氈褥書籍中. 辟蛀蟲. 『神隱』

37) 황유정, 앞 논문, p.15.

수 및 보존처리 후의 상태조사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목조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봉심’처럼 주기적으로 상태를 살펴보는 방법과 기록물의 온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각각(架閣庫)가 민가와 접하여 있을 경우 민가를 철거하거나 노비들이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게 함으로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예방보존적 노력을 하여 왔다. 또 문서고 주변에 연못이나 우물 등을 만들어 화재 시 쉽게 진화하도록 방화수를 확보하기도 하였다.³⁸⁾ 그리고 전주의 사고를 南原의 智異山으로, 星州의 사고를 善山의 金鰲山으로, 忠州의 사고를 淸風의 月岳山으로 옮기되 모두 사찰에 의해 관리하게 하였던 점도 화재 및 전란의 피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³⁹⁾ 예방적 보존활동이었다.

세종 5년 계묘(1423) 6월 23일(壬申)에 호조에서 각처 창고의 화재에 대해 ‘창고를 5,6명(楹)의 간격을 두고 담을 싸서 불기운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옥상에도 두껍게 바르고 기와로 덮고, 또한 처마 밑에 돌아가면서 담을 쌓아 그 높이가 처마까지 닿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지는⁴⁰⁾ 예방보존적 방법을 건의하였다.

세종 13년 신해(1431) 4월 3일(丁酉)에 화재예방을 위해 민호를 적당히 나누어서 한 동이를 만들고 도로를 넓게 트고 못도 파고 우물도 파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원장(垣牆)을 높이 쌓으면 불이 번질 염려가 없을 것이며 종묘의 소나무를 솜아내는 것이 어떠한가를 명하였을 때, 맹사성 등이 못과 우물을 파는 것보다 인가가 조밀한 곳은 조금 길을 띄우고 담을 처마에 닿게 쌓아서 서까래 끝이 묻히게 하며, 지붕의 안팎을 진흙으로 두껍게 바르고 나무 울타리를 못하도록 하고, 기와를 널리 사용하게 하고, 종묘 담 안의 소나무는 자로 재어서 솜아 베는 것이 좋을 것임을 아뢴 일 등도 목조 건조물에 대한 예방보존적 방법이었다.⁴¹⁾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갑진(1724) 9월 29일(기사)는 선정문(宣政門) 안의 화재 예방 등에 대한 논의로, “궐 안에 화재를 진압하는 도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어찌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화재를 막는 도구들을 도감을 시켜 두 문 근처에 넉넉하게 준비해 두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화재를 막는 도구들을 준비하게 하여 예방하였다. 또 화재를 예방하거나 소화를 위해 ‘금화염(禁火鹽)’을 두었는데 이것은 궁궐이나 능, 원 등의 건물 내에 두멍, 곧 큰 가마나 독에 물과 함께 타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의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를 막기 위해 건물 주변에 동백나무와 같은 방화림을 조성하거나 반대로 나무의 수목을 제거하고 일종의 방화벽인 돌

38) 이효준, 「조선시대 건축물의 화재기록과 방재정책 연구」(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74~93.

39) 『朝鮮王朝實錄』 世祖12년 11월 乙酉

40) 『朝鮮王朝實錄』, 世宗5년 癸卯(1423) 6월 23일(壬申)

41) 朝鮮王朝實錄, 世宗13년 辛亥 4월 3일 丁酉.

담을 돌렸던 것도⁴²⁾ 예방보존적 노력이었다.

화성성역의궤에 보면 성곽의 성문 홍예개관 상부에 석회를 도포하였는데, 이는 성문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불이 나기 쉽고, 특히 출입문 홍예개관은 불이 붙으면 바로 상부의 문루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개관 상부에 석회를 발라 화재로부터 보호하려는⁴³⁾ 예방보존적 조치였다.

어진의 봉심에 대한 내용 가운데 건물 내부를 ‘청소’하였다⁴⁴⁾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른바 환기와 환풍, 청소 등은 서양의 하우스키퍼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로 건조물 문화재의 예방보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이다. 또한 임진·병자 양란을 겪은 후 진전의 피난 대책을 세웠는데 숙종 2년(1703)에 실록각의 옛 터에 경기전 별전을 세우고 변란이 생기면 태조 어진을 이곳으로 옮겨서 봉안하거나 정전 수리 시, 별전에 봉예하도록 한 일은⁴⁵⁾ 예방보존적인 조치였다. 또 정설은 아니지만 경기전 정전의 풍판에 거북이 조각을 붙여놓은 일, 해남 미황사 대웅전 초석에 바다생물을 조각한 일 등은 화마가 이러한 조각을 보고 피할 것이라는, 화재 예방과 관련된 방법요소로 회자되고 있다.

이 외에도 목재를 기본으로 한 목가구와 목공예품의 제작에 있어서 목재 표면에 기공을 매우거나 수분에 대한 흡습성을 방지하기 위해 옷칠을 하였고⁴⁶⁾ 내구성이 요구되는 기물에 옷을 바른 일 등이 옷칠의 방수성, 방부성으로 인해 사용되었고 또 옷칠은 광택도 나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하지 않아 내구성이 뛰어난 천연도료로 인정받아⁴⁷⁾ 사용해 왔던 점 등 예방보존적 목적으로 가지고 행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IV.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예방보존 방법론

문화재의 원형유지 또는 원형보존은 각 나라마다 기본적인 문화재관리 요소이며 이코모스에서 발표된 여러 현장에서의 문화재 보존 원칙도 원형유지에 기준을 두고 있다. 즉 베니스헌장(1964년)

42) 김홍섭, 「조선시대 사고건물의 도서보관방법에 관한 연구」(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4호, 2001), p.66.

43) 『전통건축물의 지붕 시공기법연구』(아름터건축사사무소, 2012), pp.24~31.

44) 김철배, 「조선시대 경기전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139~140.

45) 김철배, 앞 논문, p.145.

46) 김수철, 「고대칠기 분석 및 보존처리」(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7

47) 김복곤, 「악학궤범을 기저로 한 전통악기의 개량과 제작 방법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106~108.

은 항구적인 유지관리가 보존원칙으로 정해졌고 역사적목구조물원칙(1999) 역시 최소한의 개입이 가장 이상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또 토속건축유산현장에서 토속유산의 올바른 평가와 성공적인 보호는 ‘지속적인 사용과 유지’라고 하였고, 벽화원칙에서도 원위치 보존과 예방적 보존, 유지 관리를 전제로 하였다. 이처럼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많은 논의들과 방침들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을 대어 관리하는 보수나 보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이고 또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문화재의 역할은 매우 크다. 문화재의 원형유지는 ‘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예방’을 통해 그 고유성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방보존은 매우 중요한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예방보존’은 여러 곳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글은 예방의학을 차용하여 문화재 예방보존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예방의학은 질병의 예방을 다루는 의학의 한 분야로,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기전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으로⁴⁸⁾ 문화재의 예방보존도 질병, 훼손 또는 열화의 원인 등의 기전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듯 문화재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 상태를 ‘양호’라고 한다. 문화재에 있어서 훼손이나 열화가 발생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를 항상성에 두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예방보존이다. 또한 지난날 ‘건강’이 ‘질병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라는 고정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연속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듯이, 문화재 역시 한번 수리나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하였다가 다시 훼손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훼손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라서 문화재의 예방적 보존방법이 문화재관리에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문화재를 예방보존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는 첫 단계이며 앞으로 더 연구를 진행하겠다.

1. 예방보존을 위한 기초 방법론

예방의학에 있어서 ‘1 차 예방’은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와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재활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과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모니터링’이 이에 해당한다. 즉 문화재에 어떤 변화, 또는 어떤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여 미리 예방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예방의학에서 ‘2 차 예방’은 신체의 기능 장애나 질병보다는 생체의 조절 기능이 변해가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상 기능이 완전히 파탄되기 이전에 예방조치를 취하여 건강한 사람이 병들지 않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로 말하자면 꾸준히 문화재를 환기 및 청소하고 그 주변을 정리하여 양

48) 유승훈 외, 『예방의학』(계축문화사, 2008) pp.36~37.

호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일로 ‘일상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3차 예방’은 질병의 초기 또는 잠복기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질병의 초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일로 문화재의 경우 ‘경미한 간섭적 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문화재에 있어서 예방보존은 1차 예방인 모니터링, 2차 예방인 일상관리, 3차 예방인 경미한 간섭적 관리의 3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 3 영역의 활동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개괄적 방법이기 때문에 예방보존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다음 연구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

1) 1차 예방보존 방법 - 모니터링활동

모니터링은 문화재를 잘 단속團束하기 위한 주기적인⁴⁹⁾ 감시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보존·관리해야 좋은가의 방향을 모색하는 행위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봉심’이나 ‘형지안’과 비슷한 활동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은 3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목조건물이나 석탑의 건조물 기울기 여부, 석탑의 조각이나 석비의 글자 부분 등의 박리박락 여부, 흰개미에 의한 목조건축물 피해 여부, 기와 파손에 의한 지붕부 누수 여부, 도난과 화재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점검하고 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정기모니터링과 태풍이나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재난 등의 피해 상황 파악, 대응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그리고 흰개미모니터링을 비롯한 생물학적인 피해 조사, 목조 문화재 변위측정, 석조 문화재 훼손상태 점검 등 보존 과학적 전문 모니터링의 3 영역으로 구분한다.

문화재모니터링은 이러한 3 영역에 더하여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문화재, 특히 미지정문화재⁵⁰⁾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지정문화재의 그동안의 수리, 보수가 그 진정한 고유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손을 대지 않은 미지정문화재와 문화재에 얽힌 무형적 기법까지 조사한다면 문화재의 고유성을 찾아 낼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전국의 문화재돌봄 사업단에 의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조사와 기록, 동일한 모니터링보고서 작성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화가 이루어질 때, 문화재 훼손에 대한 분석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방보존적 관리가 이

49) 정재훈, 앞 논문,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50) 문화재분류에 있어서 ‘비지정문화재’라고 부르고 있는데 ‘비’는 아니더라는 뜻이 더 강하여 문화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지정문화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모니터링에 의한 문화재의 예방보존은 특히 흰개미의 모니터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⁵¹⁾ 목조 건축물의 드론을 이용한 지붕의 기와상태 모니터링은 건물의 누수를 방지하는 일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천연기념물인 수목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법은 단계적 확장이 필요하다. 즉 현재 문화재의 변화와 이상을 감지하는 정기모니터링, 재난 등에 의한 긴급모니터링,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전문모니터링 외에 각 지역의 이러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문화재 보수 및 보존 대책이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즉 문화재를 산간지방, 해안지방, 내륙지방으로 나누고 다시 인구밀도에 따른 분석 등을 이룩함으로써 각각의 문화재에서 어떤 변화와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주기로 훼손이 일어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등급의 기준을 준용하여⁵²⁾ 문화재 관리등급을 정한 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2차 예방보존 방법 - 일상관리 활동

앞서 언급하였듯이 1 차 예방은 꾸준히 문화재를 점검하고 관찰하면서 문화재 주변 환경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는 일로, 그 결과를 분석해보면 문화재 훼손의 1 차 원인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의학에서의 2 차 예방은 생체의 조절 기능이 변해가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상 기능이 완전히 파탄되기 이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여 병들지 않고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있어서 일상관리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즉 문화재의 환기 및 청소와 그 주변을 정리하여 양호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일상관리’ 활동이 2 차 예방보존방법이다.

일상관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관람환경 청결유지를 위한 문화재 및 그 주변 청소 및 풀베기, 군불때기, 동절기 문화재 주변지역의 제빙, 제설작업, 도난경보·화재예방 시설점검, 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 등 ‘환기, 청소, 제설, 담장넝쿨 및 벌집 제거, 배수로정비, 지붕 위 낙엽제거, 안내판청소, 제초작업 등 문화재와 주변 환경을 정비 정화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었다.⁵³⁾

51) 심소저, 「전북지역 목조건축물의 모니터링에 의한 흰개미 예방관리」(에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52)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건조물문화재의 상태를 A등급: 양호안전, B등급: 경미보수, C등급: 관찰, D등급: 정밀진단, E등급: 보수보존처리대상, F등급: 긴급(바로조치)로 정하였다.

53)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보고서』(문화재청, 2014), p.10.

목조건축물과 지류섬유류 문화재는 관리에 있어서 환기와 환풍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탁한 공기를 빼고 맑은 공기로 바꾸는 환기와 환풍은 습기를 제어하는 일이나 내부의 미세균을 바람에 의해 날려 보내는 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문을 열어 제치는 방법과 포쇄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습기는 문화재의 생물학적 훼손과 열화에 있어서 발병의 주된 요인이 되므로 문화재의 환기와 환풍은 가장 기본적인 일상관리 방법이다. 청소와 풀베기 또한 문화재 주변의 습기와 해충을 없애는 관리로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다. 모든 문화재는 선조들이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시에 쓰고 닦는 관리가 늘 있어왔다. 그렇게 하므로 오염물질이 붙지 않고, 해충의 공격에도 안전하고, 풀베기는 문화재 주변의 습기의 함량을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청소 및 풀베기 등의 관리는 서양에서 건축 관리인인 집사라 불린 사람이 쓰고 닦고 환기 환풍 시키던 하우스키퍼 방법과 유사하다.

이 일상관리는 관람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⁵⁴⁾ 실제로 문화재는 우리의 선조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활용도 또 다른 보존관리 방법이다. 군불 떼기 역시 건물과 건물 안의 문화유산으로부터 습기를 제거하고 해충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담장냉쿨제거는 냉쿨이 담장의 돌과 흙 벽들의 재질을 영양소로 먹고 자라면서 재질을 훼손하고 있어서 제거해야 한다.⁵⁵⁾

지붕위의 쌓인 낙엽도 기와에 물기를 머금게 하여 하중 및 여러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있으므로 청소해야 한다. 이처럼 일상관리는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므로 서구선진국과 일본은 소유자 관리자에 의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는 어려운 정치적 국가적 상황 가운데 민족정체성을 다지기 위해 문화재를 내세워야 했기 때문에 소유자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뒤쳐진 상황이다.

3) 3차 예방보존 - 경미한 간섭적 관리

예방보존(preservation)⁵⁶⁾은 문화재를 예방하는 일로, 필요한 보존활동의 포괄적인 범위, 방법, 영향 등을 검토하는 분야로 손을 대어 처리하는 것과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행위이다.

경미한 간섭적 관리는 문화재 재질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류문화유산이나 섬유류 문화유산의 떨어져나간 책지부분의 보수 보존, 잔금이 간 나무 기둥의 인공수지처리, 목공예품의 문고

54) 『2015 문화재돌봄사업 소유자관리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6.1%의 만족도를 나타냄

55) 실제로 전주 구 예수병원의 냉쿨로 인해 매년 1cm정도의 벽돌분이 창에 쌓인다.

56) 2008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ICOM-CC회원국 트리엔날레 회의에서는 “예방조치(예방보존)preventive care”라고 하였는데 모든 유형문화재에 적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부식과 상태변화의 경감과 예방을 위한 행동과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예방조치 preventive care라고 한 것은 preventive conservation과는 다른 뜻이라고 본다.

리, 경칩 등의 방청작업, 발굴지 토층의 부분적 경화, 소량의 세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건축과 그 주변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면적의 10 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m²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잔디를 보식하거나 깎는 행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를 준설하는 행위,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진입로와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일부 훼손된 기단·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 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m²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자생초화류를 심는 행위,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등이다.⁵⁷⁾ 경미한 간섭적 활동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전 국민 누구라도 할 수 일이지만, 무분별한 수리를 막고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해 문화재청이 정한 관리단체, 관리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2. 예방보존을 위한 시스템 - 파트너십 스킴

모니터링은 관리 대상의 각 문화재에 어떠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고 이를 통해 어떤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또 어떤 경미한 간섭적 활동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각 문화재에 어떤 훼손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기록한다면 이전의 상황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 축적이 된다.

모니터링을 통한 일상관리와 경미한 간섭적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돌봄’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경미한 간섭적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수리’ 또는 ‘보수’ 및 ‘보존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경미한 간섭적 관리의 범위를 넘는 문화재의 모니터링 결과는 문화재청과 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공유하여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모니터링 할 대상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건조물 관리 구분에 따라 등급화 하여 모니터링 하고, 그 가운데 E와

57) 「문화재돌봄사업 운용 매뉴얼」(문화재청, 2014), p.14.

F 등급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해 예상견적을 첨부한 보고서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문화재청의 지방청이 없어서 문화재 관리행정을 각 지자체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문화재 대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나 전국의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모니터링 한 결과, 경미한 수리 이상일 경우, 예상되는 예산까지 첨부한 보고서 작성으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돕는 ‘문화재 파트너십 스킴’(partnership scheme)⁵⁸⁾이 문화재를 예방보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V. 맺음말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예방보존’은 우리의 선조들이 행해 왔던 ‘봉심’, ‘형지’ 등과 비슷한 일로, “문화재의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막고 문화재가 후손에게 잘 전해지도록 손을 대지 않고 문화재의 주변 환경 및 보존환경을 유지(maintenance), 관리(controls)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방보존은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로, 손을 대서 수리하는 일은 아무래도 재료나 기법에 있어서 현대적인 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유성과 진정성에 있어서 여러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재가 고유성을 지닌 진정한 문화재로 후대에까지 잘 전승되게 하기 위해 예방보존이 필요하다.

예방보존 방법은 선조들이 해 왔던 ‘봉심’ 또는 ‘형지’와 비슷한 모니터링과 보존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상관리, 그리고 깨진 기와를 바로 교체하는 일, 창호를 바르는 일 등의 경미한 간접적 관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재의 재질별 예방보존은 예방의학의 방법을 차용하여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하기로 하겠다.

주제어(Key Words)

예방보존(preservation), 보존(conservation), 원형유지(maintain of original form and state), 문화재 관리(cultural heritage care), 진정성(authenticity), 모니터링(monitored), 보존환경(preservation environment), 고유성(unique feature)

58) ‘문화재 파트너십 스킴(partnership scheme)’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황과 경미한 문화재보수 이상의 예상예산견적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초지자체, 지자체, 문화재청에 송부함으로써 차기년도 예산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재 담당의 파트너십 업무를 보조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문헌 및 단행본

- 『東醫寶鑑』
『山林經濟』
『朝鮮王朝實錄』
도이시겐조 외 지음, 전경미 옮김, 『문화재보존과학의 원리』, 한언, 2004
유승흠 외, 『예방의학』, 계축문화사, 2008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 2012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4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운용 매뉴얼』, 2014
문화재청, 『2015 문화재돌봄사업 소유자관리자 고객만족도 조사』, 2015
아름터건축사무소, 『전통건축물의 지붕 시공기법연구』, 2012

- 논문

- 고명환, 「건축물 문화재 예방보존을 위한 관리방법의 기초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경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의 교명 상황」, 『고궁문화』, 제2호, 국립고궁박물관, 2008
김복곤, 「악학궤범을 기저로 한 전통악기의 개량과 제작 방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수철, 「고대칠기 분석 및 보존처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철배, 「조선시대 경기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홍섭, 「조선시대 사고건물의 도서보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4호, 2001
박대길, 『조선후기 적상산사고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신병주,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간행과 보관」, 『역사와현실』, 통권61호, 2006
심소저, 「전북지역 목조건축물의 모니터링에 의한 환경미 예방관리」,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이명선, 「중요무형문화재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7
이상해,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복원의 과제」, 『문화재』 제26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이수정, 「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 원칙의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 『문화재』 49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이진희, 「조선시대 장황 용어와 관련 기록」, 『장서각』 2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이호준, 「조선시대 건축물의 화계기록과 방재정책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원성숙, 「한국의 식물성 염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송기중 · 신병주 · 박지선 · 이연성, 『조선왕조실록 -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조은혜, 「서화 유물 보존에 사용된 전통 천연 약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하상민, 「백반의 상처 치유 활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한미라, 「국화과 3종(선복화, 감국, 홍화)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과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황유정, 「조선시대 기록물의 보존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변청자, 「한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체성의 문제」, 홍익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예방보존 방법론

전 경 미

문화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시각적인 역사자료로, 문화융성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자원이며, 이를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문화재는 선조가 우리에게 남겨 준 유산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인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소임도 지니고 있기에 그 보존관리는 더욱 강조되어오고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전까지는 주로 손을 대어 수리하는 ‘수리보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보존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과 원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추세가 더하여지고 강조되고 있다.

예방보존이 필요한 이유는 ‘원형유지’를 위해서이다. ‘원형’의 개념은 “본래의 형상 즉 형태와 상태를 모두 포함하며 처음 만들어진 시점의 모습이나 당대 이전의 모습을 모두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의 용어를 암시하는 것”으로, ‘원형’은 그 문화유산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근간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모든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방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문화재가 민족 또는 국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즉 각 국가 정체성을 지닌 문화유산은 21세기 산업을 이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방보존은 더욱 필요하다.

예방보존의 방법은 1차 예방인 모니터링, 2차 예방인 일상관리, 3차 예방인 경미한 간섭적 관리의 세 영역의 방법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시론적 방법이기 때문에 재질별 예방보존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다음 연구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

A Preservation Methodology for the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s

kyoung-mee, Chun

Cultural Heritages are visual and historical materials that contain long histories and traditions. They are resources that should be used most actively in the era of cultural enrichment.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s are very important for this purpose. In addition,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passed on to us not only by our ancestors but by the world as a whole.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s are very important for this purpose. In addition,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passed on to us not only by our ancestors but also by their duties as a universal cultural heritage. Thus, they have additional roles to play as world heritages that contain the universal and exceptional values of mankind. Accordingly, more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i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cultural heritages perform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ver the years show that before the 2000s, policies were focused on “repair and conservation” conducted by hand.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interests in the philosophical concepts of preservation and the original forms of the cultural heritages were adopted and emphasized.

Preservation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original form” of cultural heritages.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implies a term with comprehensive meanings, including the form (both shape and state) of a cultural heritage at the time of its creation and before its time. Accordingly, the “original form” is considered to be an element that forms the basis for the “uniqueness” of a cultural heritage. Thus, the concept should be adopted as the most basic standard for every effort of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Another reason why preservation is necessary is that cultural heritages represent the identity of an ethnic group, nation, or region. That is, preservation is especially necessary because the industry that surrounds cultural heritages that contain national identity will become an important field throughout the 21st century.

Methods for preservation wer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which monitoring, include daily management, and slight interference conservation. The method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introductory. Thus, the specific methods of preservation according to the materials used in a cultural heritage will be explored in more detail in future studies.

논문투고일 2018년 4월 26일 | 논문심사일 2018년 5월 1일 | 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5월 10일